

#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성공 만전

### 군, 축제 추진상황 보고회 갖고 지원단 준비상황 등 공유

무주군이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앞두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성공적으로 선보이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무주군은 25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실·과·원·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반딧불축제 지원단의 각 팀별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군은 축제 성공을 위해 반딧불축제 지원단을 꾸렸다.

무주반딧불축제 지원단은 총괄예술·기획사·반디·푸드환경·시설교통·홍보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세부적인 추진방향과 업무분장으로 반딧불축제가 명실공히 최고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날 지원단은 각 분야별로 보고를 통해 "총괄예술·교통·농·특산물 운영·홍보 등 분야별 업무를 꼼꼼하게 살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반딧불은 축제기간 동안 "예체 문화관 1층에 반디의 숲과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도록 반디누리관 설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며, "사라져가는 곤충 특별전"을 마련하고 관람객들에게 곤충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학습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원단은 다음달 2일과 8일, 16일, 그리고 22일 5차 추진상황보고회를 갖고 축제 추진 및 보고회 준비에 만전을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개막식 모습.

기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제26회 반딧불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추진상황 점검이 뒷받침돼야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며 "차질 없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11일 무주군청 전통문화의 집에서 진행된 '무주반딧불축제 종합계획 설명회' 자리에서 이번 축제는 무주에서의 편안한 휴식과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 공간 구현을 위해 축제공간과 콘셉트, 환경 등을 연

출하고 야간형 축제로 전환한 점이 특징으로 신규 콘텐츠 야간 집중화 전략으로 축제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에서는 '무주에서의 휴식과 감동' 슬로건으로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반디별 소풍,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이안행렬, 안성 낙화놀이, 가족과 함께하는 1박2일 생태탐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뮤지라이팅 공연, 남대천 드론쇼 등 신규 프로그램들도 선보인다.

【무주=전문선 기자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방안 논의

### 최훈식 장수군수,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실시

최훈식 장수군수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코로나19 행정안전센터 운영 집중 캠페인 실시 및 현수막 게시 등 각종 매체를 통한 4차 예방접종, 개인방역수칙 준수 홍보 △코로나19 지역 방역대책반을 운영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수군을 찾는 방문객과 군민들의 이동량이 증가하고 에어컨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실내 활동이 늘어난 만큼 캠페인·현수막·마을방송 등을 통한 개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환기 등)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강조했다.

또한 군은 18일부터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대상자가 △50대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으로 확대 시행된 점을 홍보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해 각 기관별로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자발적 거리두기, 예방접종 등과 관련한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만큼 군민들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금강 주변 발전 위해 우수처리시설 절실"

### 최윤선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신속 도입 요구

무주군의회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이 부남면을 관통하는 금강변 마을에 우수처리시설을 신속히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제26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맑은물사업소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남면과 무주읍의 금강 주변 마을이 지나친 규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수처리시설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무주에서도 부남면이 특히 낙후된 것은 금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흔한 식당이나 카페도 못 차릴 정도로 정부가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규제의 원인은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금강을 오염시

킬 수 있다는 우려"라며 "소규모 우수처리시설이라도 도입해 금강 오염 우려를 종식시키면 무주군이 금강유역 환경정화에 개발행위를 요청할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남면은 최근 금강변투쟁길 걷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머물다 갈 휴게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카페는 물론 식당도 몇 곳 없어 방문객이 식사를 하려면 인근지역으로 가야 할 정도이다.

최 위원장은 "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받을 시설을 갖추며 원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면 부남면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무주군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질의에 무주군 맑은물사업소는 "우수처리시설 도입에 필요한 여건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무주군이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민행복을 실현하고 군민들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부여, 하반기 양질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군에 따르면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앞두고 오는 8월 1일까지 상반기 10개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 착수했다. 만족도 조사 내용은 △프로그램 참

여 목적 △강사 강의 방식 및 학습자와의 교감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교육환경 만족도 프로그램 참여 유무 △추후 개설 희망 강좌 △프로그램 운영시간 △평생교육 발전 위한 의견 등 11개 사항을 묻고 있다.

군은 이를 토대로 하반기부터 시행될 평생교육 과목을 확정할 계획이며, 개선사항도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민 하나 되기 큰마음 글쓰기 공모전 개최

진안군 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푸른꿈 외 6개 작은도서관)는 7월 25일~8월 31일까지 '2022 진안군민 하나 되기 큰마음 글쓰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관내 7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군민들의 인문학적 감수성을 일깨워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건강한 독서 습관 정착을 위해 기획했다.

작은도서관은 푸른꿈 작은도서관, 노계3동 작은도서관, 마이 작은도서관, 부귀 작은도서관, 동향 작은도서관, 숲속 작은도서관, 흰구름 작은도서관 등 7개 소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공모전은 8세(초등학교) 이상의 진안군민이면 누구나 아동부, 청소년부, 일반부로 나뉘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신청서와 200자 원고지 5~10매, A4 용지 1~2매(포인트 13, 줄간격 160) 분량의 작품을 참여 작은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yunju96@hanmail.net)로 접수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총력

장수군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개체 수 조절을 통한 생태계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33명의 전문 수렵인으로 구성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지난 1월부터 야생동물 피해 현장에 투입돼 포획 활동을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운영된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수렵 활동 제한지역을 제외한 장수군 전역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있으며, 유해 야생동물 출몰, 피해신고 접수시 긴급 출동해 포획 활동을 펼쳐 농작물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고원 수박' 라이브커머스로 만나요"

### 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라이브특가·사모데이 이벤트 등 진행

진안군 지역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몰'이 26일 신상품으로 진안고원 수박을 업데이트함과 동시에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다.

군은 26일 10시~12시까지 네이버쇼핑 라이브 도전 라이브 카테고리를 통해 제철 농산물인 '진안고원 수박'의 생방송 판매를 실시간 진행한다.

이번 라이브커머스 진행상품은 진안군 관내 수박농가들을 대표해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인 유통하는 최상급 명품 수박으로 선별했다.

진안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수박은 재배과정부터 선별포장, 출하과정까지 안전성 검증을 통해 GAP인증 을 받았다.

또한 해발 400m의 고랭지 청정지역



인 진안의 지형과 일교차가 큰 기후 덕분에 수박의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당도와 향이 탁월해 수도권의 대형유통업체 등도 최상급으로 인정받는 명품수박이며 수박의 당도가 11brix 이상

으로 특성에 해당한다.

이날 진안고원 수박은 오전 10시~12시까지 300통 한정으로 라이브특가를 적용해 5% 선할인한다. 더불어 '35(사모)데이 이벤트' 마지막 날로 35% 할인쿠폰 발급(200매 한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5% 할인에 35% 쿠폰 합인을 추가 적용하면, 8kg 대 명품수박 한 통을 1만원대 중반 정도로 구매할 수 있다.

생방송 판매는 진안군청 로컬푸드팀이 직접 촬영 및 진행하며, 진안군 수박 공신출하회 소속 농가(연합회 회장 이성재)가 함께 출연해 수박주스(명모반)와 수박파르페, 수박라떼, 수박샐러드 등 제철과일 수박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하고, 수박의 영양분과 효능 등을 알아보는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